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4일 (음력 12월 8일) 수요일

국민의당 분당 초입기 광주·전남 선거판 요동



국민의당 분당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판도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과 반대파 등 3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구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6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반대파로 나뉘며 분당 사태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중도 파이자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주승용 의원이 통합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양강 구도로 펼쳐질 예정이었던 전남지사 선거는 3자 대결 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이개호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간 경선 승자와,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의원간 경선 승자인 박지원이 예고됐지만, 주 의원이 통합파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통합신당-개혁신당 등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자간 빅매치 가능성을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유리할 것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다.

3자 구도에서는 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의 필승을 예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 세대별로 나뉜 표심과 인물론 등을 감안할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반 통합파의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인지도가 높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거취 등도 또다른 변수

전남지사 후보 양자 대결서 3자 대결 불가피 이개호-노관규·박지원·주승용 '빅매치' 안갯속 구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선택 고민

로 꼽히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도 역시 국민의당 분당이 이뤄질 경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의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 예비 주자들이 통합 반대쪽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당세에 맞서 개혁신당이 나올지, 무소속이 나올지 등 장교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중도파로 분류돼 온 김동철(광주광역시) 손금주(나주회선) 황주홍 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거취에 따라 해당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택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개혁신당쪽으로 후보 쏠림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신당측에서 어떤 후보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지형이 급속도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뜻을 비쳤던 광역의원들의 'U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중 심철의 의원이 서구청장, 박준수 유정심 의원이 남구청장, 이은방 의원이 북구청장, 이정현 김민중 의원이 각각 광산구청장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전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권욱 의원이 목포시장, 전정철 의원이 담양군수, 정영선 의원이 신안군수, 임명규 의장이 보성군수, 명현관 의원이 해남군수, 광영체 의원이 강진군수, 장일 의원이 진도군수 등의 선거에 각각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분당사태로 치달으면서 통합신당 개혁신당 무소속이냐를 놓고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다"면서 "선거판이 안갯속이 되자, 일부 의원들은 기초단체장 도전을 포기하고 지방의원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춘정 기자



적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소리를 냈다. 이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나 의원은 지난 스포츠서울리뷰 때 북한이 참여하면 남북회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초청하기도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사한을 보낸 나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고백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20일 북한예술탄사전점검단의 예정된 방문이 돌연 취소되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 "안 왔으면 좋겠다 나? 강원도민은 물론 국민과 세계의 적이 되고 싶은 것이 나? 고 반문했다. 이시장은 '분단을 악용하고 평화를 오연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이 청산되어야 할 악질 적폐인 또 나의 이유'라고 비난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나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재명



문재인 정권이 잘 되는 꼴 못 보지

나경원



우리 정치의 수준을...

이재명

최남규 기자

전남 농관원 내달 14일까지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와 부정유통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전남 농관원은 다음달 14일까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남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 거래가 많은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통신판매업체, 양곡판매상 등이다.

또 단속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범정부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군(공휴일·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전남 14개 시군 한파주의보 "동파 피해 등 주의"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됐다.

광주기상청은 23일 오후 9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장흥·화순·나주·영광·합평·영암·해남·강진·순천·보성·장성·구례·곡성·담양에 한파주의보를 발

효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일 최저 기온은 영광 영하 6.2도, 곡성 영하 6.1도, 구례 영하 5.5도, 담양 영하 5.4도, 광주 영하 4.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랍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

하 9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부터 토요일인 27일 사이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을 기록하겠다.

이날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2~7cm, 광주와 전남 내륙은 1~3cm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랍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며 "동파 등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며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안전 운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